농촌진흥청 동정 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5.(일)

토마토 바이러스 피해 농가 찾아 공적 방제 상황 점검

-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15일 남원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현장 찾아

- 공적 방제 등 지원 대책 점검… 피해 확산 차단 총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의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현장을 살피고, 공적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토마토와 고추류(파프리카 포함)에 발생하는 규제병해충(관리병해충) 식물 바이러스이다.

이에 감염되면 잎에 모자이크·황화(노랗게 됨)·얼룩무늬를 유발하고, 열매에는 갈색 반점과 주름·균열, 착색 불량 등이 생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난 10월 국내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충남·전북·경남·부산 등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날 김 원장은 발생 시설의 감염 식물체 폐기와 소독 처리 여건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비상 방제대책반에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분석하고, 확진 농가에 대한 공적 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김대현 원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농작업 중 손이나 작업 도구, 출하 상자 등의 접촉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하므로 작업 전후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식물을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즉시 격리한 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라고 말하며 “식물 바이러스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토마토는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전국 모든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발생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발생 농가와 연관 육묘장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붙임. 현장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총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남수 (063-238-6400)
		담당자	지도사	이승규 (063-238-6421)
<공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세원 (063-238-6300)
		담당자	연구관	최승국 (063-238-6320)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현장 방문 계획(안)

❑ 세부일정

14:20 ~ 14:40	20	◦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피해, 공동 방제 상황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14:40 ~ 15:00	20	◦ 농업인 현장 의견청취 * 애로사항 등	